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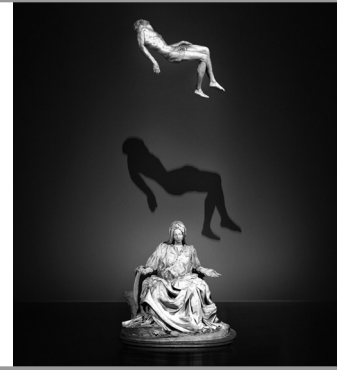
계간 자 201708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CONTENTS

표지이야기

이이남 작, Born again Light 2014 FRP, 340×90×160cm

전남 담양 출생,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일반대학원 미술학 박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개
인천 및 주요전시 이스탄불비엔날레(2017, 이스탄불), '신소장품 2016 부산시립미술관' (2017, 부산), '러시아 사이버페스트'(2017, 러시아), 빌
비올라 이이남(2016, 벨기에), '세계의 정원 전 (2016, 스위스),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빛, 생명, 물질 (2016, 광주) 등 총 40여회, 삼성전자
전속작가(2008~2013), G20 서울정상회의 선정작가 한국유네스코위원 홍보대사,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영상감독, 2015 광주 유니버시아
드 미술총감독,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막식 미디어아트 감독, 제 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식 대회기 인수 미디어아트 감독.



	여는 시 순록이 있는 초원	서승현
2	'창'을 열며 꽃도 거짓말을 하는 구나	김정희
3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지상중계 첫번째 이야기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두번째 이야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20	문화인 탐구생활 향토의 기억을 걷다 - 노성태 향토사학자	서연정
22	문화진단 장기 마스터 플랜·브랜드 파워' 있는가 타르트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고선주 김광옥
26	문화포커스 오월과 촛불, 지역과 청년	곽상희
28	문화현장 우리에게 영원히 남은 것들 통기타, 포크송의 예술혼 문화재(文化財)의 보존과 그 가치	김을현 편집부
32	문화청년그룹 아름다운 사람길 도심관광트레일 아름다운 사람은 이 길을 걷는다	조현희
34	문화톡톡 말(馬) 거북(龜) 코끼리(象)··· 상형문자의 시적(詩的) 판타지 보라 길 위의 풍경 스위스	강상현 박신영
38	재단·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창’을 열며

꽃도 거짓말을 하는 구나

김정희_ 시인, 재단 부이사장



모시 한복빛 개망초가 여름 정취를 듬뿍 쏟아 낸다. 여름날 어디 서든 군락을 이루는 개망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철도가 건설될 때 철도침목을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그때 함께 묻어 온 것이라 한다. 철도가 놓인 곳을 따라 흰색 꽃이 핀 것을 보고 일본이 조선을 망하게 하려고 이 꽃의 씨를 뿌렸다고 하여 ‘망국초’라 불렀고 그 후 망초보다 더 예쁜 꽃이 나타났는데 망초보다 더 나쁜 꽃이라 하여 ‘개망초’라고 불렀단다.

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떨치는 요즘 해바라기꽃 접시꽃도 흔하게 피어있다. 꽃은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꽃아, 너도 거짓말을 하는 구나 / 어제 그 모습은 무엇이었지?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붉은 입술과 향기 / 오늘은 모두 사라지고 없 구나 / 꽃아 그래도 오나라 / 거짓 사랑아’ //

문득 집근처의 장미 정원을 산책하다 문정희 시인의 「오라, 거짓 사랑아」를 읊어 보았다.

21세기 도시 유목민은 자연과 구체적인 관계를 보전하고자 더 많은 식물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 한다. 게놈 공학 덕분에 식물이 도시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식물의 색, 크기, 형태, 냄새를 바꿀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객이 직접 디자인하는 맞춤형도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후각까지 디지털화 하는데 성공하면 꽃다발이 내뿜는 향기를 상상하며 산책하는 날도 올 것 같다. 이것 또한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이 인간사회에 대응하는 순리일까? 문득 순리에 따라 변화

하는 자연계에서 인간은 가장 느리게 진화하는 종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세월호의 진실 규명과 탄핵으로 이어진 수천수만의 촛불이 꽃처럼 피어난 자리- 그 경건한 슬픔의 높이에서 선거를 치렀다. 진부한 어제의 과오위에 빛나는 내일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지만 정치도 사회 현상도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 변하면서 발전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말이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도모하고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 하나니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법, 지혜로운 사람은 끝내 큰 것을 꾀하지 않으므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노자의 말이다. 붓다, 예수, 공자 같은 성인도 그들이 나무를 베고 물을 길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의 길 위에서 ‘도’를 펼쳤다.

지난 선거의 현장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비난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머리와 꼬리의 논쟁이 참으로 어수선하다. ‘정의가 없다면 인간은 수치다’ 카프카의 말이다. 이 말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볼 만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영웅이나 대의처럼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순하지만 숨겨진 작은 것, 그 속에 지극히 마땅한 자연이 숨 쉬는 건 아닐까.

‘오라 거짓 사랑아’ 여류 시인의 역설적 시 제목처럼 우리가 까마득히 잊은 것은 지극히 본질적인 목표에 대한 망각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을 지키는 정치와 정의 - 여름 꽃들이 피고 지는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꽃아, 너도 거짓말을 하는 구나.’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지상중계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 **일시** 2017년 7월 6일 목요일, 7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장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강당
- **주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대동문화재단,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진도북(춤)보존회 내드름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광주마당, 윤상원기념사업회
- **후원**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축소 왜곡되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정상화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광주광역시 관계자 및 시민문화예술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포럼이 개최됐다.

지난 7월 6일과 13일 두 차례로 나누어 개최된 지역문화포럼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문화 환경을 적극 활용 해 광주가 주도적으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정상화,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과 실천 과제는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편집자주

프로그램

첫번째 이야기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사회** 박선정(광주대 겸임교수)
- **발표** 박해광(전남대 교수)
염방렬(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토론** 김병석(아시아문화원장)
박강배(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박진현(광주일보 편집부국장)
김인철(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정두용(청년문화허브 대표)

두번째 이야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 **사회** 송진희(호남대 예술대학장)
- **발표** 김하림(조선대 교수)
이병훈(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 **토론** 황병해(조선대 교수)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정민(전남대 교수)
한 선(호남대 교수)
김석웅(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소순천(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 직위는 포럼 당시 기준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지상중계

첫번째 이야기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발표자 박해광_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보수 이념편향적 정부의 편파적인 지배는 결국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귀결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결과를 촉발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지원 배제를 낳은 '블랙리스트'나, 미르-K 스포츠 재단을 통한 불법 뇌물 등과 같은 '문화예술 정책'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적폐 청산의 사명을 갖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문화예술 정책에서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지향과 목표를 가질 것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공약의 특징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공약의 슬로건은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며, 그 핵심 정신을 '자율, 분권, 협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 이념이었던 '자율, 분권, 참여'의 이념과 유사성 및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약은 5개의 문화적 권리, 즉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공약에서 가장 강조점이 두어져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블랙리스트 청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 및

복지에 대한 공약이다. 둘째, 일상에서의 문화 향유에 대한 강조는 문화를 예술로부터 확장하여 일상의 문화향유와 일상의 문화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균형지수 개발이나 지역문화재생사업 등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으로서 평가될 수 있고, 문화도시 개발은 참여정부 문화도시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지역 균형 및 특화 문화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관광에 대한 강조 역시 주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관광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및 지역 특화를 통한 균형 발전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 행정에서의 뚜렷한 변화들이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지원의 공정성 제고, 문화예술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집행의 민간 위원회 이양 등의 문제들이 행정상의 중요한 쟁점이자 정책 방향으로서 토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정상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추진이 미미했던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 문화도시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역 분권과 특화의 기초 하에서 실

질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며, 문화중심도시 사업 역시 예산의 마련과 집행, 또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관건은 광주 사례가 보여주듯이,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정책으로부터 '시민주도의 생활문화' 활성화로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전당의 기능을 시민 주도의 생활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문화 정책의 '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은 창작, 향유, 교육, 산업 등이 복합적인 것이 되며, 이에 더하여 문화 개념이 비예술적인 생활문화 영역으로 확장됨으로써 복합적 사고와 각 영역들의 협치가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문화예술정책은 노동 및 경제관련 정책과도 긴밀히 결합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문화예술 공공기관 및 문화산업 부문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여가 향유 확대를 위한 지역 관광산업의 특화와 관련 시스템의 확충, 도시 재생과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의 정책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문화예술 영역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영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건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역의 입장에서 분권과 문화민주주의에 맞는 정책적 준비들이 요구된다. 우선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맞는 정책 협치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행정의 지역협치 모델로서 구상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 문화시설 운영이나 단순 업무 등의 한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광주의 경우도 재원 확보나 전문성의 제고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민관 협치기구로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고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 업무의 상당한 이양과 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문화재단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광주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청빙위원회에 더하여, 기관 운영에 문화예술인 및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공익이사제 등)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관련하여 좀 더 체계적인 계획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도시 재생의 핵심은 '문화 예술 사회 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진 문화도시로의 재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거시적 계획을 지역 내부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 재생 및 공간의 문화화를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즉 유희재생공간의 창작 및 예술인 주거공간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의 활용,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미술관 영화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일상의 문화와 및 생활문화 확대에 따라 동네와 생활공간에서 문화 향유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이용가능한 문화공간과 시설에 대해 네트워크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들 간의 연결을 위한 기반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특화 정책에 대한 지역 정체성 전략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와 문화균형발전 정책 속에는 각 지역들이 추구해야 할 '특화의 내용과 방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제안해야 할 몫이다. 즉 광주의 문화예술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은 지역에 결합되어 있는 이미지와 의미들을 배경으로 하여, 지역적인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담론을 통해 만들어지고 표출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 지역이 가진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들에 대한 재검토와, 한편으로 담론의 주체로서 창작자, 매개자, 향유자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장적 속의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발표자 염방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생활문화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무너진 문화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과 함께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과 광주시의 노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문화진흥에서 문화분권으로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향유 사업 등 지역문화재단들의 고유사업 영역에 속하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근에는 지역협력형 방식으로 국비 매칭 후 지자체의 위탁 방식으로 시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출처 차원에서만 보면 사업재원이 지자체에서 정부로 다양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지역협력형사업의 시발점이 정부 정책이고 그 집행 체계가 매우 엄격하게 지정되어 하달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지역의 정책 결정권이 급격히 축소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진흥’에서 ‘문화분권’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문화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정은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1%를 달성하였고,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현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 목표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흡하다(현 1.4%). 한편, 국가 문화재정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문화재정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문화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의 획기적 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문화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안정적 지역문화예산 및 통합적 재정 정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목적세 신설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전향적인 추가 재원 확보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로 할당함이 적절한 세원을 발굴하고 세법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가칭)지방문화세를 신설하고 신규 세원으로서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광주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은 시민의 삶과 행복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전문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결되어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는 개인활동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재생산 차원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동호회 활동 공간 마련 등 활동기반과 관련된 간접 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치구별 거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동호회 활동 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동호회 실태조사, 동호회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성화, 동호회 한마당 개최 등 재정의 허용 범위안에서 단계별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문화정책의 핵심은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

민선 6기 문화예술정책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창의와 상상력이 어우러지는 ‘꿈꾸는 문화도시’ 구현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과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광주의 경쟁력을 문화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첫째, 아시아문화전당과 어울리는 문화도시 조성, 둘째, 7대문화권 조성 등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구축, 셋째,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시민자율형 문화예술 진흥, 넷째, 문화로 먹고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다섯째, 도시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거점도시 육성이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체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①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②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③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민선 6기 문화정책은 타율에서 자율로, 규제에서 독립으로 의존에서 책임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가 광주의 미래를 바꾸는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광주의 경쟁력을 문화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팔길이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문화예술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 ‘꿈꾸는 문화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문화행정도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 지역의 문화예술적 경쟁력은 그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수준과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행정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휘되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정책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도시의 문화력은 더욱 증진될 것이다.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문화정책의 핵심은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바탕위에 우리 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고품격의 문화도시 조성과 남도인의 예술적 끼가 살아 숨쉬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조성 등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광주만의 브랜드 개발에 역점과제를 두고 추진 중에 있다.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주말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와 야시장 등을 연계한 문화예술 축제를 전개하고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실태조사와 청년문화실태조사, 우수한 예술인들의 역외유출이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문화건설 텅 사업 등을 실시하고,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지역문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나아갈 방향,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토론문_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박강배_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문화재단 설립 7년차에 즈음하여 그간 담당했던 업무를 검토해보면 •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은 과도했고 •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은 부족했으며 •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은 거의 이루지 못했다.

새정부의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을 이룩하고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문화재단은 몇 가지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생활문화의 확대와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최근 2년 사이에 시작한 생활문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의 방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동아리 현황 및 청년 문화 향유 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 특화를 이루기 위한 기구로서 문화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시행하고 협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과 예술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광주문화단체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히 새정부의 문화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문화재단은 아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 문화다양성 및 사회적 약자와 문화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평등권 보장 활동의 강화 •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욱 많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 마련 • 생활문화권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 지역밀착형 생활문화를 진흥하고 상생 기반 마련 • 지역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가를 광주에 정착케 하는 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토론문_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

김병석_ 아시아문화원장

문화원과 전당은 '15년 11월 공식개관 이후, 그간 다양한 참여주체의 각 입장에서 투영되는 전당이라는 '상(象)'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 기초하여 다양한 상들의 교집합을 확인하고 운영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산하기관·단체, 문화원 및 전당의 다양한 협력사업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시립극단·발레단 및 시향과 지역예술단체 등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들이나 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되는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들은 더욱 확대될 지역문화 활성화의 좋은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화원과 전당이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부족한 상황

임이 사실이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과 전당의 역할은 앞서 염방열 실장님, 박해광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방향을 기초로 하여 분석했을 때 '협업·발굴과 재조명·육성'의 세 가지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협업'은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들과의 공동제작과 유통방식이며 최근 맥베스 411(시립극단), 로미오와 줄리엣(시립발레단) 등 제작사례를 들 수 있다. 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 전당과 문화원의 시설과 전문인력 및 예산을 매칭하여 퀄리티를 높이고 제작비용의 절감과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전국단위의 홍보와 유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단체의

역량강화와 타지역으로의 유통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문화전당과 문화원은 우선 미술분야를 시작으로 지역예술가를 '발굴'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오픈한 로터스 랜드는 2~30대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문화창조원 복합 2관에서 전시 중이다. 6월에는 우리지역의 대표 원로화가인 황영성 작가 초대전을 오픈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소개하여 '재조명' 하는 등 마케팅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전당이라는 시설과 규모의 이점을 활용한 역량 있는 신진 지역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중견 작가들을 재조명하여 그들의 작품활동을 외부에 소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은 공연, 전시, 융복합미디어, 교육, 축제 등을 직접 기

획·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직종의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각 분야의 인력을 '양성' 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술극장을 운용할 수 있는 무대기술 전문인력, 미디어시티를 표방하는 광주에서조차 다양한 미디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시 테크니션을 구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현재 전시 테크니션, 축제기획자, 문화교육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당의 당초 기능 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각 전문분야에 대한 포스트 교육과정 등 심화교육을 통해 전당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토론문_ 지역문화와 미래지향적 문화인력

김인설_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지역문화라 함은 한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지역인들의 공동체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인류학적 층위의 개념으로 특정한 '지역공동체'를 함축하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라는 표현은 현실에서 매우 협소한 활용 수준에 멈추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일반적으로 지역문화를 논할 때 우리는 통상 전통문화, 민족예술, 또는 지역의 특성, 역사 등 지역적 대표성을 띤 무언가를 주제로 다룬 '문화'만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구성원인 동시에 특정 지역의 '지역인'들이며, 모든 문화인력들은 어딘가에 속한 '지역문화인력'들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또한 그 지역의 역사나 전통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닌, 다분히 동시대적이며 일상을 담고 있는 생물(生物)로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문화에 대한 개념은 이제 단순히 역사성, 전통성 또는 대표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에서 벗어나

(세계화를 포함한) 동시대성과 그 지역인들의 일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와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특정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문화의 인력이 지역의 인재만을 중심으로 등용되는 것이 절대 참이라는 명제는 무척이나 폐쇄적이고 지엽적인 판단이다. 특히 '문화전문인력'이라는 용어자체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역 또는 지방을 얼마나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공공기관의 인력 문제만으로 지역문화와 인력의 문제를 좁혀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바른 인지가 부재한 상태의 '지역문화 바라보기'일 뿐,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문화는 과거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정신적 개념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에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자 하는 까닭은 지역문화의 인력, 그리고 그들의 생존과 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의미에서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의 인력은 단순히 공공

기관의 행정인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서 역사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 기획자, 행정가, 언론인 등 다양한 인력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은 단순히 이 '지역의 출신'만이 아닌 광주의 역사성과 지향

성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타 지역의 문화인력들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광주가 비로소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

토론문_ 시민참여와 협치, 그리고 지역문화

박진현_ 광주일보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대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지역의 기대는 유별나다. 아니 절박하다고 해야 맞겠다. 전문가들은 조성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복원을 첫 번째로 꼽는다. 지난 2003년 이후 조성사업과 7대 문화권을 총괄해 왔지만 2015년 4개 과 40명에서 1개 과 8명의 ‘미니 조직’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정상화는 조성사업의 ‘핵심 퍼즐’이다. 도약기에 진입한 조성사업을 위해선 조성위가 사업 주체인 문체부와 문화전당 및 광주시를 중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조성사업은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예산, 조직,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 못지않게 7대 문화권 사업과 주요 현안을 풀어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문화 컨트롤타워 시급

최근 광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화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지난 2002년 부터 추진해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2014년 스타트를 끊은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 2015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공식개관 등은 성공 여부에 따라 광주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 메가 이벤트가 탄력을 받도록 지역 문화정책들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문화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이유다.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한 이후 2년 동안 문화전당의 수장은 방선규 전당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지만 협치의 파트너인 광주시의 문화정책실장과 문화수도 정책관은 2~3명이 교체됐다. 이같은 상황에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협치의 관계를 맺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시가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문화부시장) 구축과 전당과의 정례협의회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광주문화재단의 위상 제고, 아울러 지역대학과의 문화인재양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 포럼 등과의 파트너십 등을 강화해야 한다. ♪

토론문_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청년 분야’

정두용_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KT&G 상상마당 광주, 상상에서 현실로

광주광역시청년종합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청년들의 놀이 및 창작 공간 확충이 23.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 공간(공연장 등 활동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청년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하자면 바로 ‘문화 공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KT&G와 부산광역시가 지난 5월 24일 ‘KT&G 상상마당 부산’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상상마당은 2007년 수도권(홍대), 2011년 충청권(논산), 2014년 강원권(춘천)에 이어 2019년 경상권(부산)에 잇따라 개관하게 되었다.

복합 문화 공간 ‘상상마당’은 KT&G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해 연 방문객 180만 명, 3,000여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

해 왔다.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상마당이 전국 권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반가움과 함께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권역에서 상상마당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전라권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로서는 다른 권역보다 전라권이 우선 진행될 것이라 기대해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상상마당 광주 조성을 상상에서 현실로 바꾸자. 상상마당 부산 조성과 동시에 상상마당 광주 조성이 진행되도록 광주 시청, 시의회, 문화인, 시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자!

그리고 이 공간이 단순 하드웨어로서의 공간, 문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일방적 문화공급 공간을 넘어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문화포럼 첫번째 이야기



지역문화포럼 두번째 이야기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지상중계

두번째 이야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과연 조성되었는가, 혹은 조성될 수 있는가?

발표자 김하림_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광주는 200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광주문화수도’ 공약으로 ‘문화광주’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문화’를 통한 도시의 발전과 지속, 생산력 확대 전략을 도모해왔다. 즉 16대 노무현 대통령후보 “광주문화수도 육성” 선거공약 발표(2002. 12. 14) 이전부터 광주의 장기적 도시 발전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하나의 흐름이 대두하고 있었다. 2000년 11월 광주시에 제출된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은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광주라는 도시가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가용 가능한 최적의 자원과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문화도시’ 광주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상기하는 것은 ‘조성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이겠지만, ‘조성사업’을 중앙정부의 시혜적 차원에서 해석하거나, 대통령의 특별관심으로 인해 ‘조성사업’이 진행된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광주시민들이 오랜 기간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도시재생-도심활성화’의 노력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광주시민은 ‘조성사업’에서 대상화될 뿐이다. 이 점은 역으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적 문제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 참여가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오월과 전남도청 건물

‘도청’을 어떻게 오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논의나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당’ 건립 예정부지가 ‘도청 일원’으로 확정되면서 도청 별관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다. 설계안이 확정되었을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지하공간에 전당이 위치하고 이는 도청을 보존하고 부각하기 위한 점이라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게 부상하지는 않았다. 결국 일부 해체로 타결을 보았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향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점의 일차적 원인은 설계자와 발주처의 오월과 광주에 대한 이해의 부족, 설계 전의 서베이의 미흡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민주평화교류원의 구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성적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당의 기능과 역할

ACC 누리집에는 그 목적, 기능과 역할을 “ACC는 아시아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입니다. 5·18민주화운동(May 18 Democratic Movement)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다면, ACC는 인권과 평화라는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개관한 지 2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전당에서 펼쳐진 프로그램들은 그 방향성과 내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당을 제외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이고, 이 부분의 핵심은 ‘7대 문화권 조성’이다. 계획에 의하면 7대 문화권 조성에 국비 15,027억원, 지방비 3,532억원 민자 8,780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담보상태이다. 이유는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5:5인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점도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7대 문화권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당은 자칫 고립된 섬으로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도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자체적으로 완결구조를 지니면서 전당과 연계되는 구도로 조성되어야 한다.

오월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합성 문제

문명과 문화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오월은 어떤 의미에서

는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유산 독점적 경제성장-군부독재’ 등과 같은 야만적/폭력적 문명에 저항하여 ‘민주, 평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고자 하는 민주항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오월과 조성사업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간격이 ‘도청 건물/전당’이라는 대칭적 구도를 현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당 및 아시아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비전이나 방향이 좀 더 새롭게 구상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남은 문제들과 해야 할 일들

2006년에 제정된 ‘특별법’은 2023년까지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7년 후인 2023년 이후에는 법적 효력을 마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노정된 제반 문제점을 수렴하여 ‘조성사업 2.0’ 프로그램을 재준비하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남은 7년 동안 준비할 필요는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전당의 운영구조는 법인화 형태로 되어 있다. 문화부 산하의 제 기관들은 ‘위탁, 법인화, 직접 운영’ 등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올바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7년의 성과가 운영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문화부-광주시-시민’들의 협치(거버넌스)가 보다 확실히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시간 동안 드러난 불협화음의 원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형태의 리더십을 각각의 조직이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과오를 묵과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조성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월/전당’의 갈등구도에 대한 책임도 내/외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의 도래

발표자 이병훈_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이 사업에 대한 왜곡, 사업축소로 인해 그동안 절름발이 추진 상황을 보였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개관했으나 조직과 예산의 축소로 인해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7대문화권사업,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등 주요사업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정부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대선기간 동안 선거공약으로 그런 시대적 요청과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제시했고, 이제 그에 대한 대비로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전 정부의 외면, 예산의 부족, 광주시의 전략부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의 작성과 단계별 실시계획에 대해 매우 미온적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사안으로 유명무실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축소, 광주시의 문화산업정책의 실행계획 및 투자 부재, 문화도시 내 활동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2.0시대의 방향은 무엇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는 시대적 요구를 전제로 이뤄진다. 4차산업혁명의 대안으로서 학계나 주요 미래기술 예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안은 ‘창의성과 문화’에 있다. 기계가 수용할 수 없는 문화관련 창의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는 그래서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광주는 그에 대한 모델도시로서 반드시 성공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임무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광주는 대한민국에 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내놓아야 할 시험대에 놓인 상태”라고 현 상황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광주 공약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련된 첫 번째 공약은 전당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당 내 ‘예술·기술 융합센터’를 조성하여 예술과 ICT에 기반 한 한국 창의 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제2의 개관이 이뤄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의 확대, 전당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광주 공약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사업 활성화와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밸리’ 조성이 포함된다. 7대문화권 사업은 그동안 무성한 연차별실시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거의 없다. 이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도심 재생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수립된 송암산단의 문화콘텐츠산업클러스터는 일부 콘텐츠의 연구와 제작에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도시전체의 산업구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도심재생과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당은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주요 시설들의 역할 활성화에 따라 아시아적 다양성과 범용

문화도시조성 방안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전당 내에 각 분야가 참여하는 '시티랩'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의 중요한 활동 플랫폼으로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 모티브이션이 될 것이다.

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킬러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창조원의 창제작센터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기관으로서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할 전초기지로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연구기술 분야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컴퓨팅, 로봇틱스, AR·VR 등 차세대 영상, 드론, 3D프린팅, 아두이노, 스마트팜, 전자음원, 빅데이터 등으로 확대하여 단순히 예술창작물 제작을 뛰어넘어야 한다.

또 창조생태계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시와의 연계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다중 주체(연구소, 대학, 관련기업, 관련단체 등)의 참여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문화도시조성 방안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전당 내에 각 분야가 참여하는 '시티랩'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의 중요한 활동 플랫폼으로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 모티브이션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각 종 도시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연구, 공공요소에 대한 문화적 연구뿐만 아니라 4차산업 대비 각종 프로젝트 개발 등 전략적 대응방안까지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시는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실시계획 등 문화도시계획을 일부 용역수행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함으로써 매우 소극적인 주민참여와 극히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지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도시전체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많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운영예산은 전당이 부담하되 연구의 방향설정

이나 연구과제 설정, 연구 실행 등은 국가·지방정부·학계·문화계·관련연구소 등 다중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이뤄짐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은 적은 인원을 갖고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인원배분 및 배치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전당과 문화원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국제간 교류, 아시아문화연구, 시설관리 등은 공무원조직인 전당이 맡고 창·제작, 인력양성, 어린이문화원 관련 업무는 법인 조직인 아시아문화원이 맡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두 조직의 통합적 관리는 아시아문화전당장이 진행토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전당장의 지위를 당초대로 정무직으로 승격하여 국책사업을 이끌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문화원 조직은 5개원 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전시·창제작·공연·교육·고객관리·인사·회계 등의 기능별로 팀을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제이다. 적은 수로 전체 시설을 관리 운영하려다보니 궁여지책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직형태라고 판단되나 향후 인력의 확충을 대비하여 본래의 5개원 체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아직 시작도 못한 중요 사업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초의 방향대로 5개원 체제가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단은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추진단을 1국 4과로 편성하여 아시아문화전당장 산하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와 전당이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시적인 연구체계를 전당내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도시와 전당의 연계기능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토론문_ 법과 제도, 조직 정상화 방안

황병하_ 조선대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의 근거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광주 조성 종합계획’ (2005년 8월)과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아특법)이었다. 아특법은 2026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연장을 통해 2026년도 이후에도 아특법의 효력이 연장되도록 해야 한다.

2. 전당의 특수법인화로 인한 문제점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확보 문제이다. 당장 2026년까지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이후 어떤 예산으로 전당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3. 문화전당 조직의 안정화는 전당 및 문화원의 창의성, 자율성, 책임성, 능동성 확대와 직결된다. 전당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광주 문화 활성화에 남긴 상처는 너무 크다.

4. 전당의 법인화 작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전당 조직의 불안정은 문화콘텐츠

개발의 부실과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5.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당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부 요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 내부 요인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거버넌스 기구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의 핵심은 미래의 광주 문화 도시에 대한 변화, 창의, 비전 제시이다. 광주의 문화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집단적 고민은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융합과 화합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은 광주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특정화 및 폐쇄화가 아니라 대중화 및 보편화시켜야 하며,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의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토론문_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새 정부가 내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의 핵심은 지난 양대 정부 아래서 왜곡되고 축소되어 지지부진한 조성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정상화는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회복하고, 변화된 문화지형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0시대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 및 국정운영 기조, 문화정책의 패러다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전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과 운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의 목적과 핵심전략에 대한 수정, 사업의 재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주평화교류원의 개원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이념을 지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

는 핵심기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전당을 둘러싼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사이의 비대칭적인 간극을 좁히고, 5·18공간의 원형보존과 5·18의 문화예술적 확장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경과한 역사적 기억과 공간의 100% 복원이란 불가능의 영역이다. 문화적 재현이 사실적 재현보다 훨씬 강렬한 의미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현재의 의미 충돌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합리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광주 속의 비광주’ 상황에 처해 있는 문화전당에 대한 지역의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전당 운영에서 협치와 분권의 실행이다. 새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과 자치를 말하는 상황에서 조성사업

이나 문화전당의 운영도 지역의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일각에서 제안한 ‘문화전당 운영협의회’가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다. 문화분권의 원리를 문화전당의 운영을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정책 사안이나 사업에 따라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분야별 분권협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또한 콘텐츠 생산에서 ‘아시아’ 강박을 벗어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수급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 한국 → 광주로 이어지는 하향적 접근이 아니라, 광주에 비중을 두고 지역으로부터 생산되는 콘텐츠가 문화전당 내부에서 수용되고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문화전당의 실질적 토대를 다지는 길이다. ♪

토론문_ 시민참여와 민관협치에 기반을 둔 조성사업과 전당

한 선_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금 이 시점에서 광주의 문화거버넌스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동안 조성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협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국가적, 지역적, 시민적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광주 문화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이 광범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문화도시와 관련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문제는 이 경우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가 골치 아픈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거버넌스를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이나 정책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회피해버리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도청별관 원형보존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5·18 최후항전지 옛 도청원형보존’ 관련 담론도 앞으로 주의 깊게 살

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 경우 시민사회는 문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역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상호의존과 협력, 신뢰와 일관성, 책임의식, 자원과 권한의 분배는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과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기에 시민사회(단체)도 그에 합당한 역량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문화거버넌스의 성공적 구축과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가 시민과의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거버넌스가 협치를 강조하면서 과거의 공무원이 하던 역할을 소수의 전문가가 대체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유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거버넌스의 참여주체로 과연 개개의 광주시민이 누리는 문화향유권을 고려했는지, 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나 문화전당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교한 거버넌스 틀이 확보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

토론문_ 아시아문화전당, CT 연구원의 활성화, 그리고 광주문화산업의 육성

주정민_ 전남대 교수

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주요한 다섯 가지 항목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전당의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차라리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과 이를 구현하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의 접근성 측면에서 향유자(소극적 소비자)와 창·제작자(적극적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예술성과 대중성의 확보를 통한 전당활성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셋째, 5개원 13개 센터의 유기적인 연계 및 순화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문화광장, 아시아문화원 옥상광장, 다목적이벤트 마당, 계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당만의 독창성을 가진 국제페스티벌을 열고, 전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전당의 브랜드 가치를 쌓아야 한다.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의 당위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사업 및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성장엔진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다양한 문화적 지원을 최선의 CT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생산하는 구조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CT기술을 개발하고 추동하는데 있어, 직접 참여 및 지원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송암산단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CGI센터가 입주해 있고, 아울러 2020년까지 최선의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 공동혁신도시의 콘텐츠 관련기관의 지원(아이디어 등)을 받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원형을 송암산단의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에서 콘텐츠화 할 수 있다. 완성된 콘텐츠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전시, 교류 및 공동혁신도시의 홍보마케팅 창을 통해 전국 및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www}

토론문_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위한 지역 정부 협력방안과 대선공약 실천방안

김석웅_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협력체계로는 ‘문화전당 정례협의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콘텐츠 협력회의’, ‘광주문화기관 협의회’가 가동되고 있다.

‘문화전당 정례협의회’는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광주 시, 전남도 등 4개 기관이 2014년 11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55건의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해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콘텐츠 협력회의’는 문화전당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광주 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

기술연구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립광주박물관 등 9개 기관이 지난 2015년부터 협력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문화기관 협의회’는 12개 기관의 협의체로 문화재단이 주관해 매달 정기적 회의와 정책포럼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선공약 실천방안으로 7대 문화권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아문단과의 수정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에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의 시효를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조성사업의 목표기간도 당초 2023년에서 2028년으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화부가 올해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건의를 진행하고, 내부적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8월까지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토론문_ 정부, 지역 협력 방안 및 공약실현을 위한 정부역할

소순천_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한 전당 활성화 방안은 첫째 전당이 문화콘텐츠 기반 중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당 내에 ‘아시아문화아카데미’를 국제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국제적 다분야(연구, 교류, 창제작, 문화기획, 공연 등) 전문 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및 전당 내 체류를 위한 통합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아시아 문화역량 강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추진 및 ACC 주도 아시아문화예술 네트워크 추진결과물의 국제마켓 진출 및 글로벌 문화예술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 창의콘텐츠 플랫폼 ‘예술기술융합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동안 4차에 친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어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당장의 소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선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당과 아시아문화원간 이원적 업무체제로 인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

에 대해 우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법인화 등 조속한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전남도청 복원문제는 광주시와 적극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듯이 문체부도 충분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대책위 및 광주시, 전당 등과 협의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7대 문화권 사업 추진이 미비한 현실에서 문체부·광주광역시·문화전당 등 관계기관 정례협의회 개최 및 광주 시민단체, 예술단체, 지자체(광주광역시 구별 등)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문화특성, 실현가능성 등 고려한 신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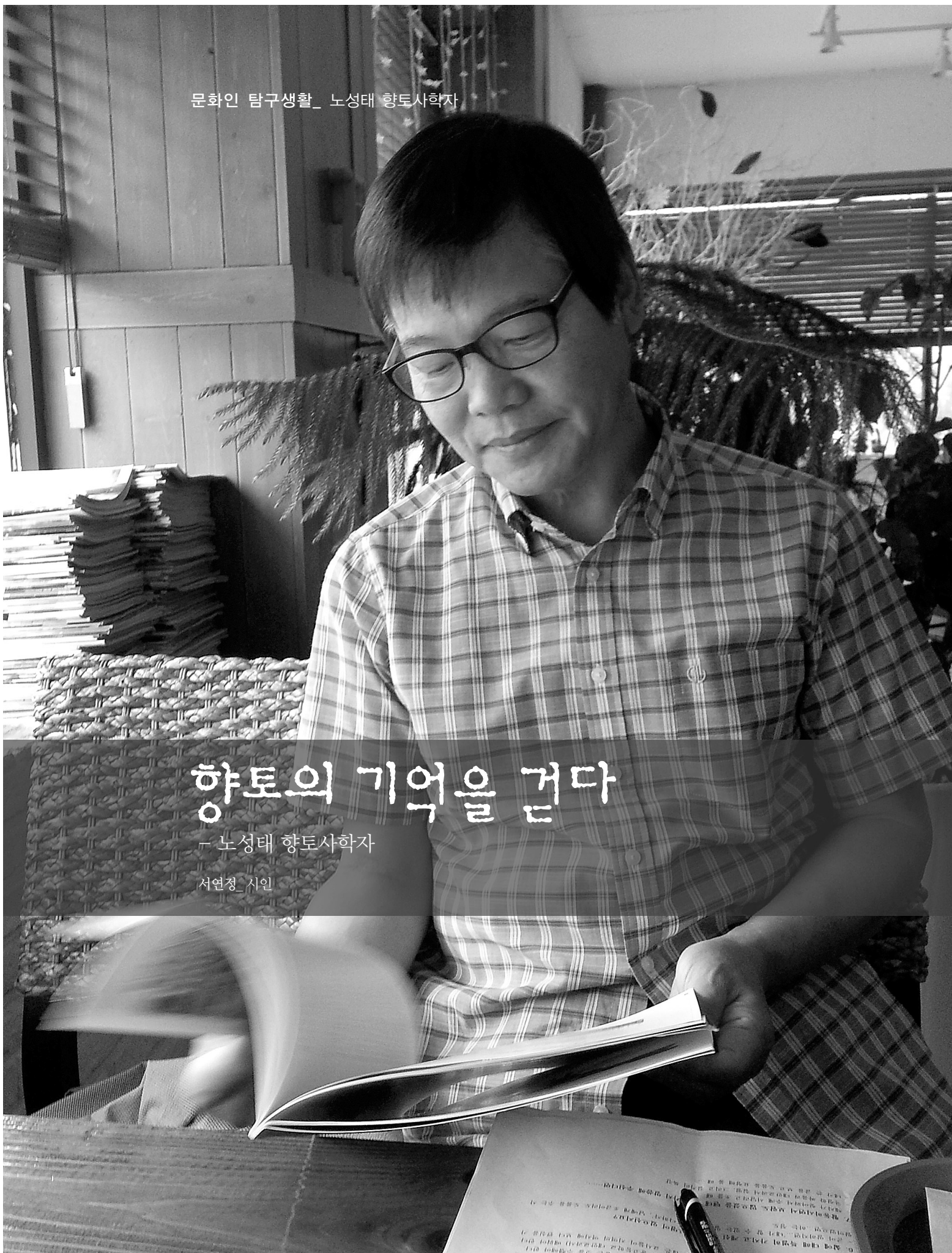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조성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문체부와 전당 그리고 광주시와의 업무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 활성화 및 전당의 전시 및 창·제작 참여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의 틀을 확보하는데 힘쓸 것이다. 

문화인 탐구생활_ 노성태 향토사학자

향토의 기억을 걷다

- 노성태 향토사학자

서연정_시인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수많은 정보가 떠오른다. 그런데 그것들은 불덩이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정체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글쓰이의 무식에서 드러난 오류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도적인 왜곡 등이 뒤섞여 떠다니기 때문이다. 정보의 신뢰성은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의 몫이 되었다. 노성태 향토사학자의 글은 광주의 인물이나 역사 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료들 중에서 신뢰도가 높다. 노성태, 그는 향토의 기억을 걷는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좋아하는 것을 나이먹도록 하며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학교 다닐 때 그냥 역사가 제일 좋아서, 역사교육과에 진학했고, 역사교사가 되었다는 사람, “걷다, 노닐다, 가다”가 생활인 사람, 강연장에서든 찻집에서든 온화하고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그가 거니는 역사의 골짜기 골짜기에는 붉은 진달래나 새하얀 구절초로 피고진 인물들이 있게 마련일 텐데, 그는 그속에서 역사와 문화원형을 발굴하고자 한다. 모습을 바꿀 뿐 어떤 식으로든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과거를 짚어보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는 20여 년 전인 1998년, 광주의 역사교사들과 함께 ‘빛고을역사교사모임’을 만들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2년도까지 회장을 하면서 20여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을 답사하고 조사하면서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게 되었다. 그 결실이 『양진여·양상기 부자의병장 실기』(2009, 광주문화원 연합회), 『독립의 기억의 걷다』(2010, 한울), 『남도의 기억을 걷다』(2012, 살림터), 『광주의 기억을 걷다』(2014, 살림터),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2015, 아시아문화커뮤니티), 『광주·남도 차이나로드를 가다』(공동 집필, 2016, 로템나무) 등의 저서로 남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의 생활 신조는 성실 그 자체이다. 그의 활동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일까 짐작만도 숨이 차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말은 함께한 이들에 대한 감사로 이어진다.

“광주·전남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을 누볐으며, 독립운동의 현장이던 만주와 연해주,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의 현장인 서안과 연안, 태항산 등도 다녔습니다. 오사카, 교토, 쓰시마, 오키나와, 큐슈 등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어디든 갔지요. 답사 후에 만든 자료집과 동료 교사들의 도움이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되



1 길거리 특강 2 연해주 우스리스크 이상설유허비

었습니다. 내 작업의 성과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동료 역사 교사들이 도와준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행간에 힘을 보태준 이들을 잊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팍팍한 인생이 더러 흐뭇하고 아름답게 느껴져 덩달아 미소를 짓게 된다.

“광주인들이 보여준 시대정신의 실천들(광주학생항일운동, 5·18, 6월항쟁, 촛불집회 등)에 대한 광주인들의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그 자긍심의 유전인자는 후손에서 후손으로 자연적으로 이어지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정리되고 교육과 체험을 통해 계승 발전되어야지요. 광주에 ‘광주 역사관’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호남학연구소(혹은 남도학연구소)도 만들어져 체계적인 남도학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그가 말하는 호남학은, 편의상 구분해놓은 행정의 경계를 넘어 오랜 시간 함께 정체성과 문화를 공유해왔던 사람들을 포함하는 연구이다. 영남학, 또는 영남학파는 있는데, 호남학 또는 호남학파가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그의 말속에는 우리 지역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에 대한 결심이 동시에 깔려 있다. 현재의 미래를 걷는 사람, 그가 앞으로 무엇에 방점을 찍으며 걸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고지신’의 새로운 문화 정책을 세우기를 응원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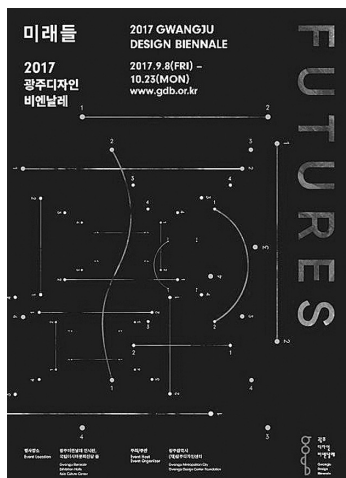
문화진단

‘장기 마스터 플랜·브랜드 파워’ 있는가

— 현장서 본 광주 문화예술에 대한 제언

고선주_〈광남일보〉 문화특집부장

미술에 비엔날레가 있었다면 공연 쪽으로는 비엔날레와 같은 행사는 없다. 유감이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보조금 위주의 보여주기식 혹은 소프트 웨어 구축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행사와 프로그램들만 고수돼 왔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전국에서 인정받는, 유일하게 광주로 통하는 간판 공연행사의 육성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

광주 문화예술을 진단할 때마다 어김 없이 등장했던 단어가 ‘장기 마스터 플랜과 브랜드 파워’가 아니었을까 싶다. 광주는 ‘예향’이니 ‘미향’이니, ‘무향’이니 하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이 별칭은 광주의 색깔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경제

한때 오류의 단면이었겠지만 권력이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문화적 해학과 풍자는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다. 그 풍자와 해학이 웃자랄 수 있는 환경에 관한한 최적인 공간이 광주였다.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탄압과 살육이 자행됐고, 피 흘려가면서 저항을 했다. ‘오월문화’나, ‘오월광주’, ‘오월문학’이니 하는 단어는 광주에만 있다. 이런 광주만의 특수한, 혹은 특이한 족적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의 문화예술 지형을 구축하는 토대가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유무형적 광주만의 유산이 있기에 타지역보다 훨씬 더 경쟁력있고, 자생력 강한 문화예술이 푸르게 숲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광주만의 간판 문화예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빈약하기 이룰데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각종 토론회와 포럼 등에서부터 뜻있는 문화예술계 원로,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을 통해 광주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대한 해법들이 제시돼 왔다.

결론적으로 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역사를 더해가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나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호남 터널 밖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광주비엔날레’를

적인 낙후와 정치·사회적 소외의 다른 치장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낙후든, 소외든 속살은 자라게 돼 있다. 부실하든, 튼실하든 말이다. 먹고 살만해도 문화가 있고, 지질이도 못먹고 살아도 문화는 있었다. 광주가 후자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지만 단순히 불운하다고만 치부할 수 없다.

꼽을 수 있다. 성년을 넘긴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23년을 맞이하고 있다. 격년제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지난해는 열렸고,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세계 제5대 비엔날레로 평가받아온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995년 광주의 민주정신을 문화로 승화시키는 한편, 국내 미술문화를 도약시키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다. 20년이 지나서부터는 비엔날레 키즈들이 전시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고, 일찍부터 전시를 접한 세대들이 감상자의 주요 계층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광주비엔날레는 문화예술이 왜 중요한가를,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비엔날레 중 최고의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는 동시에 아시아권에서도 비엔날레의 표준점이 될 정도였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광주비엔날레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마스터 플랜’을 충실히 수행하고 ‘브랜드 파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꾸준한 발전책과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해졌다. 광주비엔날레의 마스터 플랜은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그게 정착되면서 매 대회마다 탄탄한 시스템 위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다 누가 얹혀준 것이 아닌, 스스로 획득한 것이 브랜드였다. 비엔날레하면 당연히 광주였다. 지역민이든, 타지 관람객이든, 해외 미술관계자든 모두 한 목소리로 광주하면 비엔날레를 꼽았다. 이것이 현실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브랜드 파워일 것이다. 중간 중간에 성장통은 있었다.

신정아 감독 학력 위조 파문이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홍성담의 ‘세월오월’ 전시 무산 및 대표이사 사퇴, 그리고 올해 7월 전후 새로운 대표이사 물색과 낙후된 본전시관으로 인한 ‘2018비엔날레’ 전시장소 변경 등이 성장통들이다. 그래서 요즘 광주비엔날레는 중요 기로에 선듯하다. 아쉽게도 브랜드 파워가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년에 접어들은 비엔날레가 현대 청년들의 삶만큼이나 힘들어질 수 있다. 마냥 성년이 됐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른다. 광주비엔날레가 그 책임감을 다해주기를 희망한다.

광주비엔날레를 빼면 딱히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 변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식 개관했으니까 만 두살이 채 되지



2016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못했다. 국립시설로 광주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건축물이자 공간이다. 그렇지만 처음 기대처럼 ‘아시아 문화발전소’라는 애초 목표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도 멀어보이는 게 사실이다. 공부정기 여전하다. 오월단체와의 갈등구조도 지속되고 있다. 아직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

미술에 비엔날레가 있었다면 공연 쪽으로는 비엔날레와 같은 행사는 없다. 유감이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보 조금 위주의 보여주기식 혹은 소프트 웨어 구축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행사와 프로그램들만 고수돼 왔다. 광주 하면 떠오르는, 전국에서 인정받는, 유일하게 광주로 통하는 간판 공연행사의 육성에 나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서 광주 공연문화의 간판은 ‘부재하다’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 낙인은 현재까지는 유효하다.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통해 브랜드 파워 확보를 위한 접근만이 광주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일 것이다. 지자체를 비롯한 크고 작은 예술단체 관계자들 모두 자아도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조망하기를 바란다. 

문화진단

타르트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김광욱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길거리인 금남로에서 거칠지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문화전당에서는 한층 정제된 소수의 깊이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때 관객의 동선은 증가하게 되고 문화전당은 금남로까지 확장된다.

1. 타르트 전문점의 성공 : 취향저격 시대

몇 년 전에 타르트 전문점이 문을 열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 화려한 인테리어와 타르트의 비주얼 때문에 놀랐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가격 때문이다.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천원하는 타르트가 최대 6천 원까지 하는 것이다. 손바닥에 올라가는 타르트가 6천 원이라니! 잘 될까 싶었지만 우려와 달리 타르트 전문점은 성공해서 광주 뿐 아니라 서울에도 지점을 내었고, 현재도 입소문을 타고 성황 중에 있다.

타르트 전문점의 성공에서 세 가지를 짚고자 한다. 첫째, 집중화된 다양성이다. 일반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타르트는 1~2가지 종류지만 타르트 전문점은 20가지나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 하나의 메뉴로 집중했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다양해진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선택의 즐거움을 맛보았다는 점에서 타르트 전문점은 타르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이 가능하다.

둘째, 명확한 타겟이다. 타르트는 기성 세대에 익숙한 메뉴는 아니다. 디저트 문화를 즐기고 스타일을 중시하는 2030세대, 그 중에서도 구매력 있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이다. 2030세대 여성들이 먹고 싶어 하지만 비싸서 쉽게 못 먹는, 그래서 구매력 있는 여성들은 꼭 사먹게 되는 메뉴가 타르

트인 셈이다. 셋째, 차별화된 제품이다. 일반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타르트는 외양이 밋밋한 타르트전문점의 그것은 화려하다. 타르트만 굽는 파티쉐도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유통과정을 거쳤는지 불문에 부친 채 쇼케이스에 전시되어있는 조각 케이크는 확실히 다르다. 심리적 효과일 수 있으나 확실히 맛도 다르다. 그래서 6천원이라는 높은 가격임에도 기꺼이 지불하게 만든다.

정리하자면 적당한 품질과 물량공세로 승부를 보기는 어려운 시대다. 주관이 확실한 고객을 상대로 취향을 맞춰야 한다. 가히 취향저격(!)의 시대이다.

2.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누구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광주프린지)을 생각할 때마다 타르트 전문점과 대비된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아쉬움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는 집중화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른 축제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무대에서 관람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광주프린지의 배경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금남로이다. 즉, 금남로를 주변부로 설정한 광주프린지는 태생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모습

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유기적 관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나아가 광주프린지가 아시아문화전당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면 아시아문화전당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신화'를 테마로 운영되는 기간이라면 프린지에서도 '신화'를 테마로 하는 각종 거리 공연을 섭외하여 무대를 구성해야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길거리인 금남로에서 거칠지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문화전당에서는 한층 정제된 소수의 깊이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때 관객의 동선은 증가하게 되고 문화전당은 금남로까지 확장된다. 반드시 테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집중화된 다양성을 관객들이 느끼지 못하거나,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성이 없을 경우다. 만약 그렇다면 광주프린지의 기획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

다음으로 광주프린지 무대에 오른 작품들의 타겟이 명확해야 한다. 문화적 감수성이 트렌디한 젊은층인지, 클래식한 기성세대인지 핵심 타겟을 정해놓고 타겟에 맞는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거리극이라는 공간적 장점을 살

린다면 가족단위를 타겟으로 삼아 전(全)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타겟까지 확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서 가급적 확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거리 이벤트와 차별화한 거리 공연이어야 한다. 거리 이벤트라면 공간적 범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음향 효과가 우선이겠지만 거리 공연이라면 작품에 맞는 음향 효과가 우선이다. 거리 이벤트라면 다양한 볼거리들로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거리 공연이라면 공연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것을 가려 뽑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프린지의 특성상 '선발'이 적합한 것인지 따져봐야겠지만 광주프린지의 경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매주 무대에 오를 팀을 섭외하기도 벅찬 상황이기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광주프린지는 지금까지 거리 이벤트나 다른 축제와는 확연히 다른 축제임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의 방식은 관람객 수가 아니라 관람객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찾아오느냐, 그리고 문화전당의 유료 공연 및 전시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포커스

오월과 촛불, 지역과 청년

곽상희_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주무관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열흘만에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큰 감동을 주었다. 광주 오월정신이 촛불 시민혁명으로 완성되었다는 선언은 5·18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전국에 오월의 의미를 되새김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37주년 기념식은 회한과 기쁨의 눈물로 채워졌다.

촛불 집회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개최되었다. 1700만 명의 자발적인 마음이 광장으로 모였다. 전 세계 역사에 새겨질 명예 혁명이었다.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불리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가 가장 큰 목소리로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쳤다.

광장에는 또, ‘청년’이 있었다. 취업난으로 고시원 구석에 갇혀있던 청년들이, 교육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현장에 매어있던 청년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버거운 현실의 짐 때문에 숨겨온 ‘청년성’을 촛불이 불러냈다. 광장의 시민혁명이라고 말하는 지난 겨울의 촛불집회가 청년에게 준 매우 소중한 의미다.

20·30대 청년 세대를 두고 다양한 담론들이 유행처럼 지나갔다. 88만원 세대, 달관 세대, N포 세대, 또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생망 세대까지 어두운 현실 앞에 좌절과 포기기를 담은 말이었다. 경제 불황과 취업난 속에 청년은 우리 사회의 약자가 되었다.



2017 광주청년드림페스티벌





청년참여자 워크숍

대통령의 5·18기념사에서 호명된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과 같은 청년은 지금 청년 세대의 아버지들이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룩한 86세대 아버지들은 지금의 청년인 아들·딸에게 엄격했다. ‘나약하다’고 꼬집거나 ‘배부르다’고 지적했다.

촛불 혁명은 청년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안겼다. 처음이었다. 과도한 입시 교육에 짓눌려온 청년들이었다. 치열한 취업 경쟁에 주눅든 청년들이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피와 죽음으로 쟁취한 승리를 그들의 아들·딸은 맘과 평화로 손에 쥐었다. 온전히 평화로서 승리한 세대, 2017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다.

광주청년에게는 촛불 이전에 오월이 있었다. 불의에 맞서는 정의와 따뜻한 공동체 정신은 광주를 지켜온 힘이었다. 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배웠다. 지역의 어른들에게 들었다. 간접 경험은 제 살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았다. 청년들은 촛불 광장에서 37년 전의 금남로를 경험했다. 촛불의 승리를 통해 오월 정신이 열었던 민주주의의 힘을 배웠다. 2017년의 광주청년들은 당당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석달이 지났다. 앞으로 5년 동안 해결해야 하는 100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우리는 74번에 주목한다. 74번 국정과제의 주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취임사 첫 머리에도 “진정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자치와 분권은 청년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은 청년정책의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청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설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 정책으로는 현재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과 고용 구조의 악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 자립이 늦어지는 점이 청년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근본적인 해법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다방면에 걸친 사회 격차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일은 녹록치 않다. 그사이 청년들은 계속 벼랑으로 내몰린다.

왜 지역인가? 재정도, 자원도 부족한 지역에서 중앙 부처도 없는 채로 먼저 청년문제의 정책방안을 시도하는 것일까? 지역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삶이 지역에 있어서다. 삶의 관계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어서다. 멀리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지역현장에서 들여다보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복지, 주거, 문화, 참여 등 사회정책이며 삶의 종합정책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치분권은 청년정책의 날개가 돼주어야 한다.

지역에서 먼저 실험하고 시도하며 시작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자존을 지키며 미래 세대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오월을 이은 촛불이 국민주권을 말했듯이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자치주권을 말할 때다. 자치와 분권을 청년정책과 짝지으며 오월은 그렇게 또 광주청년들의 삶 속에 이어지리라. 

문화현장

우리에게 영원히 남은 것들 통기타, 포크송의 예술혼

김을현_ 시인, 포토페이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 난 차가운 손♪ 가슴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유일한 통신 수단으로 편지밖에 없었던 그때, 젊은이들은 밤을 새워 몸부림을 쳤다. 라디오 DJ가 들려주던 노래들, 통기타 시대를 풍미했던 어니언스의 '편지' 다. 이들의 앨범에는 '하얀 나비'도 있다.

음~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날들을 음~♪ 그리워 말
아요 떠나갈 님인데...

「하얀 나비」는 김정호(1952~1985)가 작사 작곡하여 부른 노래다. 1983년에 발표한 3집의 타이틀곡이다. 어둡고 암담했던 시대, 청춘들의 빈지갑만큼이나 정신 줄을 놓게 했다. 막연한 그리움, 허무가 넘실댔다.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
보는 이름 모를 소녀♪

사랑하는 사람을 연모하는 마음이 옛보여 더욱 간절했던 노래, 「이름 모를 소녀」를 읊조리다가 그만 허공에 울어버렸다. 그것은 사랑하기 이전부터 그리움을 알아버린 결과였을까.

장발머리, 나팔바지, 도끼빗을 하나 꺾으면 누구나 히피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흔히 7080으로 일컬어지는 그때, 김정호(본명 조용호)의 목소리는 청춘남녀의 가슴을 도려냈다.



1 김정호 노래비(담양 메타세콰이어길) 2 팽과리를 든 김정호

1974년 9월 김정호의 노래는 대한민국을 눈물로 적셨다. 대학생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통기타, 포그송을 전 국민에게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포그송이 대중화되며 트로트뮤직을 넘어섰다. 김정호의 전성기가 왔으나 별똥별처럼 짧은 시간을 살다가 고 말았다.

恨이 내린 음악, 끝을 알 수 없는 서러움

김정호, 그는 광주 출신으로 외가인 담양에서 자랐다. 외할아버지는 국악계의 거장인 박동신, 어머니 박숙자는 명창이었다. 아쟁 산조의 명인인 외삼촌 박종선도 국립국악단의 수석단원이었다. 김정호의 음악적 재능은 집안 내력이었다고 이정엽 교수는 말한다.

‘편지’를 히트시킨 임창제 씨는 김정호와 동고동락했던 사이다. 그는 김정호에 대해서 “비록 공부를 못해 무식한 우리지만 노래로는 세상에서 1등을 해 보자고 맹세했었다”고 말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김정호도 동가식서가속하며 서울 종로에서 노숙생활로 연명했다. 어려울수록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김정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별이 빛나는 밤에’ DJ로 이름을 날리던 고 이종환은 김정호를 유니버설 레코드에 소개했다.

1974년 9월 김정호의 노래는 대한민국을 눈물로 적셨다. 대학생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통기타, 포그송을 전 국민에게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포그송이 대중화되며 트로트뮤직을 넘어섰다. 김정호의 전성기가 왔으나 별똥별처럼 짧은 시간을 살다가 고 말았다.

고독과 허무의 집을 짓다가 떠난 김정호, 그의 대표곡인 ‘하얀 나비’를 두고 세간의 뒷담화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하얀 나비’에는 파(F)와 시(B)가 없다. 즉 5음계로 노래를 만들었다. 또한 리듬에도 4/4박자라기보다 12/8박자에 가깝다는 것이 작곡가 백창우 씨의 설명이다. 그것은 우리 가락의 뿌리를 가요에 이으며 한국적 포크송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FOREVER 김정호, 슬프고 후련했던 세월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김정호 그 이름에 고개를 숙인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34년이 흘렀다. 음악계도 성장을 거듭했고 많은 히트곡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날 통기타를 돌아볼 때 허무하기만 하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과거의 연민에 사로잡혀, 추억이나 파먹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술혼을 투영하기보다 한낱 장사의 수단으로 통기타를 내세우는 꼴을 보기도 한다. 우리의 음악을 찾기보다 서양식에 물들어 가는 현실 앞에 고개를 가로짓는다.

비록 통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었다고 말들 한다. 가수들도 그때는 니곡내곡 가리지 않고 서로의 노래를 앨범에 넣어서 불렀다. 오히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콩 한쪽도 나눠먹는 진정성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내일은 진정하게 바라는 미래였는지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며 생각해 본다. 어디선가 김정호의 흥타령이, 땡가리 장단에 맞춘 흥얼거림이 들려오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가슴 뜨끈한 노래로 우리를 적셔주기를 바란다. 슬픔으로 온 몸을 적시고 나면 가슴 후련한 아침이 오듯이. ♪



김정호 노래비가 있는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문화현장

문화재(文化財)의 보존과 그 가치

- 손끝에서 역사가 살아난다

편집부

문화재(文化財)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물, 즉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따라서 한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 발전시켜 온 모든 유형, 무형의 산물이 이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한 나라의 자원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천연자원과 생산적 자원에 국한하고 그 밖의 유형, 무형의 중요한 자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원은 천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구분되며, 이 중 문화자원은 특히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일컬어지고 있다. 문화재의 가치는 희귀성, 재질의 가치성, 시대성 및 학술성 등의 요소들이 복합되어 결정된다. 비단,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모든 물건은 희귀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동일 유형의 문화재가 없거나 수가 적을 때 그 유물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그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줄어든다.

여기 그 문화재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 문화재 전문 업체인 다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손동선 회장이 그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우선 눈에 보아 화려하고 쓰기 편리한 도구나 공간을 좋아한다. 그러나 옛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만들고 짓고 사용하였던 우리의 문화유산은 지금 시대에 견주어 볼 때 그 전통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겠다. 그래서 그는 옛 것을 발굴하여 수리하고 복원하여 오래도록 보존하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즉 사라져간 문화재를 복원하고 수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 곳에 눈을 떴고 있었는지를, 또는 얼마나 무관심 속에서 방치해 두었는지를 실감하며 다시 한 번 그 심오한 예술과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강릉 임영관지

“문화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문화재 복원은 100원짜리를 1억원 또는 10억원짜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나긴 세월과 자연, 그리고 인간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복원 및 보존 처리 작업으로 문화재의 역사성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감히 잃어버린 역사가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석탑을 해체해서 복원하고, 청동에 낀 때를 벗겨 제 빛을 내게 하고, 깨진 석불에게 환한 미소를 되돌려주려는 손작업부터 어느 하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어 언제나 문화재에 관계

문화재란 어느 한 개인, 한 분야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주무관청 및 기술자, 그리고 각 분야의 기능인들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소중하게 보존되어지고 바르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된 수리와 복원은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문화재의 소중함과 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현장을 다닐 때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원형을 중요시 않고 설계에만 의존하고 공사의 편리한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 하고 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설계대로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가능한 원형대로 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퇴색되거나 훼손 되어 가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복원시켜 그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문양을 바라보는 뿌듯함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오래되어 숨겨져 있거나 감춰져 있어 보이지 않은 문화재까지 발굴하고 찾아내서 역사 속에 다시 숨 쉬게 한다는 그 자체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다. 저마다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가 다르겠지만 그에게 희망과 보람으로 다가온 문화재 일은 지금도 또 후에도 다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

문화재란 어느 한 개인, 한 분야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주무관청 및 기술자, 그리고 각 분야의 기능인들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소중하게 보존되어지고 바르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문화재 공사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역사적 사명감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공사인 만큼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문화재를 남기고 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것이 그 이의 뜻이다.

사람이 태어나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문양과 곡선을 살려 문화재를 복원하고 또 보수를 하면서 진정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다. 노동에서 얻는 기쁨을 왕의 자리와 바꿀 수 없다는 말은 하늘에 별이 있다는 말과 같이 당연한 말이다. 때문에 그를 보며 인생은 결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은 행복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행복의 비결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있다는 앙드레 지드의 말을 빌렸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성공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그르침이 없으면 그것이 곧 성공이며, 또 남에게 배품에 있어서도 보답이 있기를 바라기 보다는 원망이 없으면 그것이 곧 보답이라고 말하며 웃는 그의 눈가에 잔잔한 행복이 곱게 번진다. 



미암유물전시관

문화청년그룹

아름다운 사람길 도심관광트레일 아름다운 사람은 이 길을 걷는다

조현희_광주도시여행청 대표

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사에서 잠깐 일했다. 당시 필자가 다녔던 여행사는 인터넷여행사의 선두주자로 2000년부터 일본자유여행 상품을 박리다매로 팔아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곳이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여행지들을 살살이 알게 되었다. 자유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려면 일본의 골목길 하나까지도 꿰고 있어야 했기에 공부는 필수였다.

일본의 유명관광지 중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큐슈 지방이 있다. 도시규모나 자연경관, 관광자원 등이 꼭 우리나라 전라도와 비슷하다. 관광자원으로만 봤을 때, 큐슈는 관광지의 매력이 우리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관광지까지 가는 여정에서 보여 지는 경관이 세련되고 아기자기할 뿐이다.



도심관광트레일 부스안의 안내 인쇄물



“그렇다면 우리 광주도 조금만 노력하면 일본처럼 관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뛰어든 사업이 국내관광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필자의 회사는 현재 관광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무료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광주의 관광지가 상품성이 낮기 때문이다. 관광은 보통 경관과 스토리로 이루어지는데, 광주는 관광지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해설사를 양성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반면 관광 스토리에 맞는 관광 상징물을 조성하거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광주는 볼거리가 없어. 광주관광은 가망 없어.”라는 패배의식 속에 광주는 광주관광을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하다가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진행되자 광주관광에 다시금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2015년 드디어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자, 광주시는 광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광주의 도심을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심관광트레일> 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필자의 회사가 이 사업을 위탁받았다. 우리는 문화전당을 기점으로 반경 4km이내에 있는 문화자원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는 광주의 유명 인사를 도심관광트레일 코스 속에서 소개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길이 광주명사(名士)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사람길 도심관광트레일’이다.

코스 1. (문학)김현승의 플라타너스길

코스 2. (그림)허백련의 예술유람길

코스 3. (음악)정율성의 음악산책길

코스 4. (대중문화)K-POP아이돌 골목길

코스 5. (인문)민주열사의 오월길

첫 번째 코스는 김현승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시향을 즐기는 여정으로 양림동과 푸른길 그리고 문화전당 주변의 분위기 있는 카페들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우리들이 학창시절에 봤던 「가을의 기도», 「플라타너스», 「눈물」 등의 시들이 모두 김현승이 양림동에 머물면서 조선대에서 교편을 잡을 때 탄생한 시들이다. 그리고 김현승이 커피 애호가가 된 사연도 자연스레 알게 된다.

두 번째 코스는 의재 허백련 선생이 그림 재료를 사러 다녔던 길을 따라가며 광주의 문화예술 현장과 마주하는 여정으로 의재미술관과 예술의거리 그리고 문화전당 주변 갤러리 및 예술인 공방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의재선생은 남종화의 대가로 광주가 예향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 이 코스는 의재선생의 작품에 유독 매화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와 차를 즐겨 마시며 무등산에서 차밭을 가꾼 사연 등을 알게 된다.

세 번째 코스는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 정율성 선생이 어린 시절 뛰놀았던 장소를 따라가며 그의 음악 혼을 경험할 수 있는 여정으로 블로동과 양림동 그리고 문화전당 주변 이색 주점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정율성 선생은 중국에서는 추앙받는 음악가로 그의 고향은 광주다. 이 코스를 걷다보면 그의 외삼촌이 한센병 환자 구휼에 헌신한 최홍종 목사이며 어린 시절 그와 함께 양림동에서 뛰놀았던 동무가 김현승과 정추였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네 번째 코스는 광주출신 K-POP아이돌 가수들이 무명시절 뛰놀았던 장소를 따라가며 광주 젊은이들이 노는 곳을 찾



문화전당에 있는 도심관광트레일 부스와 코스를 돌고 있는 사람들.

아기는 여정으로 충장로와 금남로 그리고 문화전당 주변 광주폴리를 탐방하는 코스다. 이 코스는 빅뱅의 승리, 카라의 구하라, 원더걸스의 유빈, 미스에이 수지, 동방신기이 윤노윤호, EXID, BIA4, 에이핑크, 에프터스쿨 등의 멤버들이 광주출신 K-POP아이돌 가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섯 번째 코스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위치한 5·18민중항쟁 사적지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금남로 일대와 5·18민중운동기록관 등을 둘러보는 코스다.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시계탑에 가면 분홍빛 아우라를 뿜내는 ‘도심관광트레일’ 안내부스를 만날 수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2시부터 해설사가 대기하고 있어, 시간에 맞춰 시계탑 앞으로 가면 투어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투어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정기투어 외에 평일에 투어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광주도시여행청(062-401-9926)으로 별도 문의하면 된다.

필자는 도심관광트레일을 통해 광주의 은밀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소소하고 소박한 것에서 의미를 찾고 허름한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여행을 선사하고 싶다. 이길 위에서 광주의 상징적 장소와 역사적 위인들의 행적이 다시 빛 보기를 바라본다.

문화톡톡

말(馬) 거북(龜) 코끼리(象)··· 상형문자의 시적(詩的) 판타지 보라

— ‘대한민국’의 비릇 마한(馬韓)

강상현_우리글진흥원장



영산강유역의 고분들은 이 지역 묘제(墓制)의 특징인 옹관(甕棺)와 더불어 마한사회의 존재를 뚜렷이 보여준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옛 구지봉(龜旨峰) 마루에 구지가가 올랐다. 읊는 ‘뜻’이니 거북(龜)의 뜻을 받드는 노래다. 신을 영접하는, 영신가(迎神歌)다. 경남 김해의 구지봉은 가야(伽倻) 김수로왕 탄생설화를 품고 있다. 국립박물관 곁 공원 지구인 그곳엔 수로왕비릉도 있다.

신령스런 동물[영물(靈物)]인 거북은 구워 먹고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껍질[갑(甲)]에 불을 놓아 하늘의 뜻을 물었다. 신을 모시는 것은 실은 바라는 바를 이뤄달라고 신에게 보채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점치는 행위나 원시신앙의 속셈일 터다.

동아시아 황하유역에서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갑골문(甲骨文)은 그 증거다. 서양식으로는 신탁(神託, oracle)이다. 신성(神聖)한 문자(hieroglyph, 히에로글리프)라고도 하는 이집트 상형문자도 실은 거기서 거기다.

그 껍질에 ‘신탁’의 내용을 그렸다. 글자가 된 그림이다. 갑골문으로 동아시아 문명의 새벽을 연 거북껍질은 오늘날에도 ‘본받을만한 모범’이라는 뜻 귀감(龜鑑)으로 되새김된다. 龜는 ‘귀’로도 읽는다. 감(鑑)은 거울이다.

거북의 모양을 위에서 보고 그린 그림의 도안인 이 글자 龜의 산뜻한 시적 변용, ‘내 마음의 호수’와 같은 은유법(隱喻法)이다. 원래 인류는 이렇게 시인들이었다.

코끼리 상(象)자는 세상 사물(事物·일과 물건)의 모양과 뜻을 그려 만든 상형문자(象形文字)의 대표선수다. 갑골문을 보면 긴 코를 도드라지게 그린 코끼리 그림을 90도 각도로 세운 디자인(도안)이다. 코끼리보다는 ‘그린다’는 뜻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오는 글자다.

상형(象形)이 ‘코끼리 모양’이라는 본뜻보다 ‘모양을 그린다’는, 결가지에서 갈려나온 의미에 더 가깝다는 얘기가. ‘코끼리’와 ‘그림’이 1대1로 치환(置換)되는 이 화학적 변화는 시학(詩學)이면서 동시에 풍류(風流)의 본디다.

말의 거대한, 압도적인 뜻을 담은 그 이름 마한(馬韓)이 같은 시기의 역사 가야와 함께 우리 주변의 키워드로 떠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 덕분이다. 가야사는 마한사와 함께 아름답지만, '가려져온 고대사' 다.

멋진 동물 '말'을 이르는 한자 마(馬)자에 '크다' 또는 '큰 것의 비유'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부라린 눈과 긴 갈기 훔날리며 장수(將帥)와 함께 전쟁터를 달리는 거대하고 늙름한 명마(名馬)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삼성그룹이 사주었다는 정유라의 애마(愛馬) 블라디미르도 크고 멋지더라.

'19금(禁)' 주재겠지만, 빼어나게 긴(큰) 말의 물건(?)에 열등감 하릴없던 인간들의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의 복합적 반영일 수도 있다. 이는 상당부분 인류학적으로 공통적이다. 일찍이 세계 곳곳의 문명의 새벽에 빛어진 말 승배의 이미지들은 잠재의식에 더께로 얹혀 인간에 영향을 미친다. 또 말무덤 마총(馬塚)은 고고학이며 역사이고, 우리 기억 속의 민속학이다.

말의 거대한, 압도적인 뜻을 담은 그 이름 마한(馬韓)이 같은 시기의 역사 가야와 함께 우리 주변의 키워드로 떠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 덕분이다. 가야사는 마한사와 함께 아름답지만, '가려져온 고대사' 다.

한(韓)은 겨레가 선택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다. 마한 진한(辰韓) 변한(弁韓)이 삼한(三韓)을 이뤄 겨레의 첫 이름이 됐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적통(嫡統)을 이었고, 일제(日帝) 치하 중국 땅의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의 찬란한 깃발 걸었다. 큰 한국이니 '대한(大韓)'이고 곧 '마한'이다.

'마한'은 이렇게 '대한'의 첫 이름 또는 원래 이름이었구나. 그리고 같은 이름이구나. 어느 시인의 풍류인가!

토막새김

신라와 가야의 기원은 삼한 중 각각 진한 12개국과 변한 12개국이다. 변한이 바탕인 가야는 562년 신라에 복속(服屬)됐다. 마한 54개국 중 영산강 유역의 마지막 세력이 530년경 백제에 마침내 복속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고구려 신라 백제의 3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마한은 경기疎宴陂전라지역에 걸쳐 있었으나,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전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4세기에 백제 땅이 됐다.

지난 30여년 가야사와 마한사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발굴의 결과로 과거의 통설들이 상당부분 극복되고, '가려진 왕국들'이 차츰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가야사와 마한사의 부진(不振) 또는 미진(未盡)을 서운해 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학계나 지역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 고대 도시국가들이 의미 있는 문명을 지었던 것을 생각한다. 가야와 마한에 속했던 여러 나라들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연구와 복원 또한 우리 역사의 첫 장을 바로 매기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본다. ♪



갑골문 중정문(鐘鼎文) 등 말 마(馬) 자의 옛 글자들.
이락의 저서 『한자정해』(이락의 저, 박기봉 역, 비봉출판사) 인용

문화톡톡

길 위의 풍경 스위스

박신영_ 소설가, 재단 운영위원



무언가를 속속들이 살펴보려면 그것으로부터 한발 떨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란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만나는 일이다.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 유럽 못지않게 한국을 보게 된다.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일도 여행 중 일부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여행을 떠났더라도 낯선 공기가 내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여행의 목적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내가 사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또 다른 풍경을 만나면서 어떤 의미를 머리에 새기거나 가슴에 담아가기 때문이다. 늘 먹고 마시는 일처럼 그때그때 이색적인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특정 문화를 연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어떤 목적을 두고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진다. 하지만 나는 여행의 목적 보다는 잠시 눈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를 덜어내기 위해 아들과 함께 스위스를 선택한 것이다.

검은 돈의 천국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면서 스위스의 철저한 고객 신분보장 정책도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검은 돈의 천국인 스위스를 언젠가 잠시 거쳐 오면서 그리움을 남겼었다. 그러다 지난 달 오월에 다시 스위스라는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야말로 아름답고 쫘아 처녀처럼 싱그럽고 달콤한 나라 스위스는 삶에 지쳐 있는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넘치게 주었다. 기차를 타고 도심을 이동하거나 그 유명한 융프라우를 오를 때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산을 오르는 중간 중간에 개인 살림집이 있었는데 정원과 화단에도 다채로운 꽃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산을 알록달록하게 수놓고 있었다. 목가적 전



개인 집인데도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하고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 시민을 활용한 것이다. 자신의 집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곧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라면 그들은 얼마나 정성스럽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겠는가.

원과 잘 어울리는 터라 처음에는 그저 그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에 한껏 취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하나같이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 집인데도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하고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 시민을 활용한 것이다. 자신의 집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곧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라면 그들은 얼마나 정성스럽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겠는가.

스위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푸른 초원 위에 소와 말 양과 같은 가축들이 햇빛을 받으며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다. 스위스에는 자연 상태로 방목하면 보조금을 주는 법률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축을 들판에다 마구 풀어 놓은 데서도 스위스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가축들은 그냥 풀밭을 노니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다. 그 보조금 규모가 우리 돈으로 가구당 5,000~6,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한국과 물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상당한 액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심지어 소를 방목하는 산비탈의 경사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 된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아들과 여행길에서 그것을 보며 산비탈에서의 방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정도로 꼼꼼하게 지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관광 산업과 농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스위스의 영리한 정책이 돋보였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내가 정말로 의아해 했던 것은 마트들이 하나같이 문을 늦게 열고 빨리 닫는 다는 것이다. 먹을거리를 미리 사놓지 않으면 밤에 간식거리든 술이든 마실 수가 없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한국 사람들은 마트에서 장을 봐다가 직접 밥을 해 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비싸게 사먹는 것 보다는 마트를 이용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조리기구와 시설이 한국 못지않게 잘 꾸며져 있다. 야채류는 좀 비싸지만 고기류는 질도 좋고 값이 저렴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발의 안을 놓고 시민들이 투표를 하였는데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한 시간 더 여유롭게 장을 볼 권리보다는 노동자가 현행대로 퇴근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은 발의 안은 자주 나왔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폴레랑스 문화다. 그들은 생산과 소비는 일관된 경제순환 과정의 두 측면일 뿐 각기 독립되어 있는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와 노동자의 관계 또한 각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트 직원이 한 시간 더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므로 나 역시 회사에서 일을 한 시간 더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먼 미래까지 내다본다.

그들과 함께 세월을 공유하고 있는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변의 아름다운 마을 베기스, 또 산의 여왕으로 불리는 리기산은 스위스의 심장부에서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리기산은 루체른호수에 인접한 휴양지 산이다. 루체른 호수 위로는 우아한 흰 백조들과 통통거리는 외륜선이 함께 떠다니고, 그 주변으로는 눈 덮인 리기산과 필라투스 산의 파노라마 풍경이 펼쳐진다. 그 숨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에 그곳에서는 연중 예술 행사가 끊이지 않고 열리는 것만 보아도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흠잡을 곳이 없는 낭만의 도시 아름다운 스위스! 그곳의 평화로운 공기는 그저 하늘이 내린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 낸 아름다운 천국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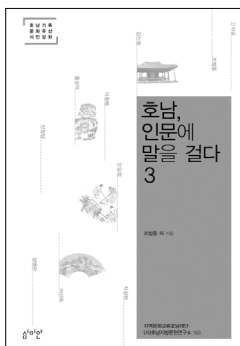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3』 출간

- 조법종, 강명관, 김신중, 고석규 교수 등 10개 강연 실려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시민강좌를 책으로 묶은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3』이 나왔다.

이 책은 우리 재단과 호남지방문화연구소(책임교수 김대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기획한 호남기록문화에서 인문의 원천을 찾기 위한 주제 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3’에서 발표된 강연을 엮은 것이다.

총 10편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 지상현 한성대 예술대학 교수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김신중 전남대 국문과 교수 고석규 목포대 사학과 교수 안길정 5·18기념재단 전임연구원 신정일 문화사학자 이선옥 미술사학자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종범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라’ 생통 포럼 열려

- 광주문도협 주최, 우리 재단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주관



광주문도협이 주최하고 우리 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지난 7월 13일(목)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80여명의 시민, 유관단체, 주최,주관 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라〉 두번째 이야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송진희 호남대 교수가 좌장, 김하림 교수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7대 문화권 활성화, 민관협력의 기반을 둔 조성사업, 조성사업과 CT연구원, 대선 공약을 실현을 위한 정부와 광주시의 역할을 주제로 각 각 황병하 조선대 교수,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정민 전남대 교수, 김석웅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광주문도협이 주최하고 우리 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지난 7월 6일(목)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80여 명의 시민, 유관단체, 주최,주관 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라〉 첫번째 이야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재단 운영위원장)가 좌장, 박해광 전남대 교수와 염방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각 각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진단 및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부와 광주, 그리고 지역문화”로 주제 발표를 하고,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박강배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정두용 청년문화 허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재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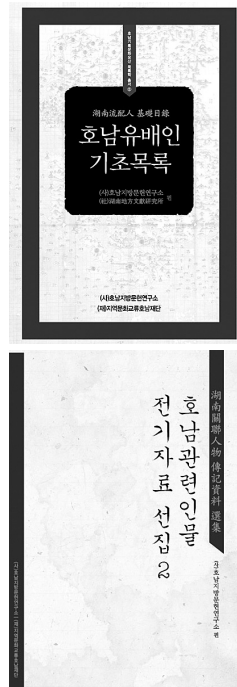
재단과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호남 관련 책자 2종 출간

– 호남지방 유배인 926명 최초로 총망라한 『호남유배인 기초 목록』, 16세기 호남 주요인물 20명 전기자료 엮은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 2』 펴내

우리 재단과 (사)호남지방문화연구 소(소장 김대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호남지방 유배인을 최초로 총망라한 『호남유배인 기초목록』과 16세기 호남의 주요인물 20명의 전기자료를 엮은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 2』를 발간했다.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은 호남지역이 중요한 유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배를 온 인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이번에 926명에 이르는 호남지방 유배인을 최초로 집대성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펴낸 『호남관련인물전기자료 전기자료 선집2』는 김인후, 유희춘, 노수신, 양응정, 백광홍, 박순, 기대승, 정개청, 고경명, 이발, 임제 등 16세기 호남인물 20명의 행적과 그 당시 사회 전반의 흐름들을 알 수 있는 행장, 묘지명, 신도비명과 같은 전기자료를 모은 것으로 호남인물 읽기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 사업 평가회의 개최

재단이 주관하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한국학 호남권진흥사업)의 평가회의가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 금수장아리랑하우스에서 진행됐다.

평가회의는 ‘2016년도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향후 내실있는 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업보고와 함께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 홈페이지



개선 • 원문 이미지 DB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 호남권 연구기관들과의 연계 방안 • DB 구성에 대한 표준화 등이 지적됐다.

한편 평가위원으로는 정재석(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연구원), 박종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변주승(전주대 교수), 류호석(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전임연구원), 송만오(전북대 연구 교수), 송일기(중앙대 교수), 신익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진재교(성균관대 교수), 이연수(호남대 교수), 김영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문화부 담당자 및 연구원들이 함께했다.

2017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광주역사문화자원 분류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접근성, 편의성 고려할 것 등 의견 제시



2017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의 제1차 자문회의가 천덕염(전남대 교수)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상무지구 식당에서 개최됐다. 자문회의는 김성 부이사장(재단 후원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덕진 책임연구원(광주교육대 교수, 재단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재단소식

장)의 사업 개요 및 경과보고, 그리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2017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은 광주 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 다. 사업내용은 광주지역 유무형 역사문화자원 1,000개를 백과사전 방식으로 DB화하고 지난해 구축된 100편의 스토리텔링 역사 문화자원에서 50편을 선정해 웹툰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역사문화 홈페이지를 구축해 역사교육, 문화관광, 이 야기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3' 성료 - 전주향교, 장성 필암서원에서 순회강좌 진행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3'를 주제로 열린 시민강좌가 지난 5월 23일 전주향교와 장성 필암서원에서의 순회강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제 1강좌는 오전 11시 전주향교문화관에서 홍성덕 전주대 교수가 '전주 기록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제 2강좌는 오후 3시에는 장성 필암서원에서 이종범 조선대 교수가 '하서 김인후와 고봉 기대승의 학술과 신정(新政)'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는 순회강좌를 포함해 10회에 걸쳐 인문학 강사들을 초청해 매 강좌마다 10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했으며, 이번 순회강좌도 4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했다.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 2차 자문회의 개최 지난 5월 10일 오후 3시 김갑제(광복회 광주전남연합회 지부장)



위원 등 5명의 자문위원과 연구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의병 기념사업 연구용역' 2차 자문회의가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오는 5월 12일 개최되는 최종보고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임진왜란 호남의병(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재단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 한말 호남의병(홍영기 순천대 교수), 호남의병 선양 사업 방안(양보경 연구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1차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임진왜란 및 한말호남의병의 연표를 추가로 조사 연구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팀에서 수용하여 이번 자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자문위원들의 선양사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제 7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경남 산청 문화탐방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제 7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이 경남 산청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된 시민대학은 네 개의 강좌를 마치고, 지난 4월 26일(수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경남 산청 곳곳을 둘러보는 '경남 역사문화

재단소식

탐방'을 수강생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형왕릉, 동의보감촌, 남사에담촌, 덕천서원, 산천재와 남명기념관을 차례로 탐방하였다.

• 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워크숍 열려



우리 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도협 워크숍이 지난 7월 18일 (화)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진가향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광주문도협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 민관합동워크숍 준비 및 향후 일정 공유, (가칭)광주협치회의 참여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민관합동워크숍에 광주문도협은 광주 100개의 작은 박물관 건립 광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을 핵심 정책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가칭)광주협치회의 참여는 아직 준비단계이므로 적극 검토하되 최종 참여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 광주문도협 사업 중 생통교육 프로그램은 대동문화 재단이 주관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광주마당,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우리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제 5회 광주 사직단오제



보존시민모임이 주관, 우리 단체를 비롯하여 30여개 유관기관이

제 5회 광주 사직단오제가 지난 6월 3일(토) 광주 향교 일원에서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와 남구가 주최하고 사직문화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전통문화의 체험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한편, 우리재단 김덕진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은 축제기획에 참여하였으며, 백수인 이사장은 사생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지역과 교류하고 있다.

서석초 보행로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해산



서석초 보행로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5월 29일(월) 활동평가회를 끝으로 해산했다. 시민모임은 문화전당 부속 주차장 조성에 따른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가 왕복 2차로 도로로 개설되는 것을 막아내고 보행전용도로를 존치를 위해 서석초학부모회, 학교, 선생님, 주민, 시민문화단체, 동구 의원 등 이 참여하여 지난 1월에 조직된 모임이다.

그동안 시민모임은 서석초 보행전용도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4월에 광주시, 문화전당, 시민모임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보행전용도로를 존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간의 경과를 보고, 평가하는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한편, 서석초 정문 앞 보행전용도로는 주민, 학부모, 학교, 아이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3차 폴리 'GD폴리'가 설치키로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하였다.

우리 재단 등 광주 시민문화예술단체,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추진과제 발표

우리 재단과 지역의 40여개 시민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는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각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도시 광주의 새로운 도약과 성공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으로 (1)문화 분권을 통한 문화민주주의 실현 (2)기초문화

재단소식

예술 진흥과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3)청년의 연결기회·시간·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문화 생태계 조성 (4)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추진 과제로 •팔길이 원칙 실현으로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보장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공익 이사제 도입 및 지역 참여 비율 확대 •문화예술기금 재 조성 및 지역문화 분권 실현 방식으로 분배 •광주역사박물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미디어아트 창의 파크 구축 •CT연구원 설립의 조속한 재추진 등을 선정했다.

• 조직

재단 미래구상 T/F팀 1·2차 모임 개최



재단 미래구상 T/F팀 1·2차 모임이 지난 7월 17일과 8월 7일 양림동 어비스 룸에서 열렸다. 모임에서는 재단 내외부의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반영하여 재단의 미래구상 및 신사업을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12월 이사회에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재단 미래구상 T/F팀은 지난 7월 8일(토) 열린 임원워크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성 후원회장, 박선정 운영위원장, 김덕진 연구소장, 안태기 시민문화교류위원장, 류영국 지역문화콘텐츠위원장, 김성환 진흥이사, 이동순 운영위원, 이기훈 상임이사가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은 박선정 운영위원장이 담당키로 했다.

재단 상반기 보고 및 하반기 전망 공유를 위한 임원 워크숍 개최

재단 상반기 보고 및 하반기 전망 공유를 위한 임원 워크숍이 2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8일(토) 대촌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기훈 상임이사가 재단 상반기 보고 및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임원들의 평가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향후 재단의 운용기조와 방향 점검, 재단의 역할과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단 미래구상 T/F모임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12월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재단 정기 임원회의 개최



재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7월 3일(월) 금수장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6월 29일(목) 포럼 무산 후속 조치 건, 광주 혁신 토론회 건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6월 29일(목) 포럼 무산 관련해서는 포럼 구성원은 변경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은 피한다'라는 기본 원칙하에 포럼의 본래적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광주 혁신 토론회에 우리 재단도 주최, 주관 단체로 참여하되 참여방식과 내용은 운영위(운영위원장단)회의에 위임키로 했다.

재단소식

재단 3차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재단 3차 정기 운영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월) 18시 30분에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임원워크숍 개최, (가칭)광주협치회의 참여, 기타 지역의 문화 현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임원워크숍은 재단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을 중심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가칭)광주협치회의 참여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어 그 상황을 공유하고 구성이 가시화되면 임원워크숍에서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2017 재단 상반기 회원 만남의 날 행사



2017 재단 상반기 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6월 10일(토) 무등산 일원에서 30여 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신입회원 환영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 목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아쉬운 프로그램이었으나, 회원들의 넉넉한 마음과 배려로 여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행사가 진행됐다.

재단 6월 정기 임원회의 개최



재단 6월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6월 5일(월)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 만남의 날, 광주문도협 포럼 주관, (가칭)광주협치회의 참여 등을 중점 논의했다.

회원 사업의 성과가 재단 조직 강화로 귀결되도록 각 의결기구 책임을 맡은 임원이 추천 회원과 소속 임원의 참여를 적극 독려키로 했으며, 광주문도협 포럼은 재단이 주관하되 하반기에서 민관 협치 방식의 포럼으로 확대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칭)광주협치회의 현황의 공유를 통해 재단이 비판과 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협치의 관점에서 담당할 역할도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모임이 구성되면 적극 참여키로 했다.

재단 5월 정기 임원회의 개최



재단 5월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5월 15일(월) 10여 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문화포럼개최, 재단 상반기 임원 워크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선 정국 대응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인 포럼은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활용하여, 민관 협치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재단소식

노력키로 하였다. 그리고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임원 상호 간의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임원 워크숍은 오는 7월 8일(토)이나 15일(토)에 개최키로 하고, 프로그램은 정책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2017년 2차 재단 후원회 이사회 개최



2017년 2차 재단 후원회 이사회가 지난 4월 24일(월) 18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성 후원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서는 회칙 개정 및 부회장 선임, 회원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회칙 개정은 후원회장이 참여한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했으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개정키로 하였다. 또한 부회장은 최형주, 오형근, 이대성 이사를 선임하고, 추후 여성을 영입하여 추천키로 했다.

2017년 2차 재단 운영위원회 개최



2017년 2차 재단 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월) 18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1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칙 개정 및 지역문화현안 대응을 중점 논의한 결

과, 본 위원회의 정책결정권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대선 관련 대응은 재단이 제안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선 간담회의 여건과, 회의에서 제안된 운영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장단의 회람을 통해 추진키로 하고, 후속 조치로 6월 중 포럼을 개최하여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단 4월 정기 임원회의 개최



재단 4월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4월 10일(월) 10여 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 만남의 날 개최, 지역문화현안 대응, 재단 규정 개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원 만남의 날은 6월 10일(토)로 정하고 기타 행사 내용과 프로그램 등은 진흥이사회에 위임토록 했다. 대선관련 대응은 지역시민문화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시기와 방식은 사무처에 위임하고, 지역문화포럼은 대선 의제의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광주문도협에 제안하고, 임원회의 논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 정책위와 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회원소식]

박요주 재단 이사,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취임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박상근 총재의 이임식과 박요주(사진) 신임 총재 취임식이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보성 출신인 박 신임 총



회원소식

재는 광주로타리클럽 부회장, 제53대 광주로타리클럽 회장, 지구 재무총장, 광주 RC 로타리재단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 6월 브라질 상파울루 세계대회와 2016년 5월 서울 세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제32년 차 지구대회 지구발전 특별공로상, 제31년 차 지구대회 재단기여 공로상, 제30년 차 지구확대상·대상클럽회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 신임 총재는 “지구를 위해서 꽃과 열매가 아니라 뿌리와 거름과 물이 되겠다”면서 “개인의 명예와 영광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로타리와 지구를 위해서 총재직은 성직이라는 신념으로 직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남일보〉 발췌

남성숙 이사, 『전라도 천년의 얼굴』 북콘서트 성료

지방신문 여기자 출신으로 광주언론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의 북콘서트가 2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 대표가 최근 출간한 새 책 『전라도 천년의 얼굴』(광주매스컴 刊)을 소개하는 이날 북콘서트에는 정·관계와 재계·사회단체 등 각계 각종 유명 인사와 독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남 대표의 『전라도 천년의 얼굴』은 정치·경제·사회·학문·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일군 전라도 인물들은 조명한 책이다.

남 대표는 또 “그동안 소외당하고 폄박받았던 호남인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회복하고 성찰하자는 취지에서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김대현 이사, 국내최초 무등산 한시 번역, 『무등산 한시선』 2판 출간, 무등산 관련 시문 수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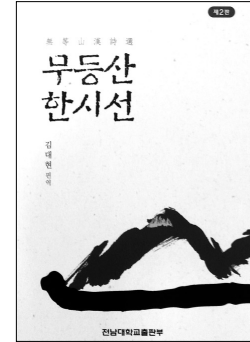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무등산에 관련한 한시가 번역되어 발간돼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발간한 1판에 이어 두번째 시집이다.

『무등산 한시선』은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김대현 교수가 번역한 것으로 무등산에 대한 한시를 옛 문헌 속에서 찾아내 시대순으로 편집하고 번역했다.

우리가 무등산을 올라가면 만나는 입석대나 서석대, 규봉암 등 무등산 정상 부근의 대표적인 절경들이 고스란히 한시 속으로 들어와 있다.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역된 이 시집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인들의 무등산 예찬을 만날 수 있다.

— 〈시민의소리〉 발췌



오건규 이사, ‘갤러리 도’ 개관전 ‘봄날 같은 내 인생’ 전시회 참여



갤러리 도가 전남 화순에 개관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읍 내평길 39-11번지에 자리한 갤러리 도(DOW)는 한국미술협회와 남부현대미술협회 및 세계미술교류협회 회원이자 그림그리는 집 원장을 맡고 있는 서양화가 김선미씨(전남대 대학원 박사과정)가 사재를 털어 개관했다. 현재 개관 기념 특별 초대전이 진행 중이다. 전시는 ‘봄날같은 내인생’이라는 타이틀로 지난달 27일 개막, 오는 24일까지다. 출품작가로는 김대길 김영희 김종일 서기문 오건규 이석원 이신숙 정해영 조규철 최순임 최재영씨 등이다.

— 〈광남일보〉 발췌

김양균 운영위원, “우리의 전통 난장문화와 컨템퍼러리적인(현대적) 굿이 만나 판을 벌인다!”

굿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의 흡수, 즉흥성, 판을 통한 공동창작, 현장성, 난장을 통한 집단신명, 나눔의 정신 등을 가져와

회원소식



2017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 예술축제가 펼쳐진다. 광주예술난장 굿판 추진위원회와 (사)전통문화연구회 일췌(대표 김양균)가 주최하

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며, 소통마당(세미나, 좌담회), 굿마당(명인전, 신진전), 판마당(영신, 오신, 송신), 향꾸네마당(굿거리,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62-676-3844)로 하면 된다

- 〈시민의소리〉 발췌

이향준 운영위원, 대인야시장서 조선시대 '서괘' 재연

- “옛 전통과 문화 살리고 싶어 두루마기 입고 책 경매”



이미 사라져버린, 생소한 직업인 책 장사꾼 '서괘'가 다시 태어났다. 이향준(52)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대인예술야시장 '간서치(看書癡) 책방' 행사에서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채 헌책 경매에 나서 '서괘'를 재연하고 있다. '간서치'는 수만권의 책을 독파하고 눈병에 걸린 뒤에도 실눈으로 책을 읽어 '책만 읽은 바보'로 불린 실학자 이덕무

가 자신에게 붙인 말이다. “서괘는 지금은 사라진 직업입니다. 제가 성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옛 전통과 문화를 온전히 되살릴 수는 없어도 흔적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아 '간서치 책방'은 올해 정식 대인예술야시장 '별장' 고정 프로그램이 됐다. 홀수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그에게 있어서도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다.

- 〈광주일보〉 발췌

양혜령 이사, 동구치과의사회 회장 구강건강 봉사



양혜령 광주광역시 동구치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동구 학동 평화맨션 경로당에서 '구강보건 교육과 치아검진 및 구강용품 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경로당 회원 및 인근 주민 어르신 50여 명이 함께 했으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잇몸 관리의 중요성 및 치아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실시됐다.

양 회장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치아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후로도 어르신들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전남일보〉 발췌

박선정 운영위원장, 양림동의 숨겨진 매력 찾아 떠나요

- 남구관광청, 이달부터 테마투어·상설공연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남구 양림동은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공간이 됐다. 굵어진 골목길마다 옛 이야기와 역사, 문화를 품고 있는 것은 물론 맛집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있어서다.
이에 남구관광청(청장 박선정)은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이 달부터 테마투어와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테마투어는 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가는 ‘테마별 도심관광의 재발견’을 주제로 하고 있다. 예술투어는 ‘청년 플러스’, 선교투어는 ‘한국대학생선교회 광주지부’, 건축투어는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야간투어는 ‘양림동 버들마을협동조합’이다.
팽귤마을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버스킹 거리공연을 진행 하고 오웬기념각에서는 타악과 성악, 밴드, 연극을 융·복합한 드 라마틱 퓨전 콘서트 ‘스텔라; STELLA’가 열린다.
박선정 남구관광청 단장은 “테마투어를 통해서 양림동만의 독특 한 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면 야간에 그 관광거점에서 펼쳐지는 상설공연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 성 전 국회의원장 비서실장
김정희 광주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정현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 사>

강동완 조선대 총장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과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양형렬 전 국제로타리 총재
양혜령 치과의사
오견규 화가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스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차일현 세무사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박요주(세무사) 이사,
국제로타리 3710지구 신임 총재 취임
- 류영국(지오게이트 대표) 지역문화콘텐츠위원장,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취임
- 김윤기 회원,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최종후보 선임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유우상(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 윤영선(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천의영(경기대학교 교수)
- 최회용(한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이유진(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 이경윤(아시아문화원 경영지원본부장)
- 김혜선(한국문화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손민식(프리랜서)
- 조인형(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김은영(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 윤영덕(공무원)

함께하는 사람들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오경희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남구관광청장
위 원	강성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조직국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혜영	(사)광주관광발전연구소 이사장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문화콘텐츠위원회〉

위원장	류영국	지오게이트 대표
위 원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주영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시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위 원	강혜경	광산구 문화콘텐츠 전문위원
	김봉석	광주대 산업기술경영학부 교수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열쑈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옥렬 다큐디자인 대표
김용혁 (주)H이 대표이사
오형근 일곡양지요양병원 대표원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 사장
정병수 남부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민정 사업팀장
이지은 총무간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김덕진 소장
김원중 연구실장
위주영 연구원